

소암 기창덕 일대기

이주연/서울 구로구 세브란스치과 원장

1) 가족

기창덕은 1924년 황해도 해주군 재령읍에서 태어나 중학교 5학년까지 다녔다. 기씨 가문의 28대 손으로 기인식의 장남으로 태어나 종손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밖에 나가서 놀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창덕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까불지도 못하고 항상 어른스럽게 굴어야 했다.

기창덕 집안의 종교는 증조할머니 때부터 장로교였다. 재령은 1904년 노일전쟁이 일어나자 평양에서 선교사업에 종사하던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이주하여 1906년 서해지역 선교스테이션으로 선정된 곳이었다. 기창덕이 다닌 명신중학교는 1907년 쿤츠(E. W. Koons)선교사가 교육사업으로 설립한 학교이다. 명신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시작되어 점차 중·고등학교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는데, 일제와 선교사들 간의 마찰로 인해 남학생들은 서부예배당의 반지하교실을 사용하고 여학생은 성경학교로 전학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당시 재령의 인구는 2만 정도였는데 휘팅(H. C. Whiting)선교사가 운영하는 제중병원과 재령공업학교, 상업학교도 있었다.

기창덕의 아버지 기인식은 소학교를 졸업하고 해주사범학교를 나온 초등학교 교사였다. 당시 사범학교는 중학교 정도의 교육기관으로 가난한 한국사람들을 데려다가 철저한 일본사람으로 만

드는 교육을 했다.

기창덕도 집에서 일본식으로 교육받았다. 인사를 할 때 반무릎을 꿇는다든지 식사를 할 때 남녀 구분없이 같이 먹는다든지 하는 것은 일본식이었다. 기인식은 20살 될 때까지 학교를 다녔는데, 결혼 당시 기인식은 14살이고 최문희는 18살이었다. 그래서 기창덕의 어머니 최문희는 기인식이 사범학교에 다니는 동안 수를 놓거나 뜨개질을 해서 가사를 꾸려나갔다. 결혼 후 6년간 아기가 생기지 않아 소박 맞을 뻔 하기도 했지만, 첫 아들로 기창덕을 낳고 남편도 직장을 가진 다음부터 안정된 가정생활을 하게 되었다. 최문희는 성품이 착하고 인자해서 살림살이가 어렵든 부유하든 간에 집에 온 사람들에게 꼭 무언가 들려 보내곤 하였다.

기인식은 재령 철산 바로 옆에 있는 상강공립 보통학교 교사로 있다가 구흥공립간이보통학교라는 벽촌의 2-3년제 학교의 교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얼마 안되어 사업을 시작했다. 인창상회라는 일종의 의류백화점 같은 것을 운영했다. 인창상회에는 양복부와 기성복부, 잡화부가 있었다. 잡화부에서는 학생복과 아동복, 부인복을 팔았고, 그 가운데 미싱부가 있어서 재봉용구를 팔기도 했다. 해방 직전 일제는 유통 통제를 위해 각 도에서 제일 실적 많은 집을 골라서 그 집에만 물건을 보냈다.

기인식은 일본인들에게도 신용을 얻어서 인창

상회는 황해도 일대에서 나오는 섬유가공품을 유통시키는 의류총판업으로 발전했다. 기인식은 그밖에 진천과 백천, 연천 등에서 주식투자형태로 이루어진 농장을 서너개 관리 운영했다.

재령집은 양철지붕으로 된 시멘트 건물로 안방과 공부방, 사랑채와 마루, 부엌, 목욕탕, 화장실과 광이 있었다. 최문희는 호박전이나 버섯전을 잘 만들었는데 광에 있는 술독은 항상 가득 채워 놓아야 했다. 기인식은 사업상 술친구를 많이 데려왔고 그럴 때마다 최문희는 이렇단 말 한마디 없이 술상을 봐야 했다.

그러나 기창덕은 아버지가 술마시는 분위기가 싫었다. 솔직히 기창덕은 죽기 전까지 기인식에 대해 숨기고 싶었던 한 가지 비밀이 있다. 기인식에게는 후처가 있었다. 기창덕은 그 때문에 아버지가 술을 저리도 자주 마시고 가정에 소홀하다고 생각했다. 술에 취해 흐트러진 기인식의 모습은 어린 기창덕에게 자신이라도 집안의 위계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부담을 안겨주었다. 아버지를 대신할 수 있는 권위를 갖기 위해 기창덕은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 바른 행동만 하려고 했다.

기창덕 밑으로 4명의 동생이 있었는데 자신보다 더 어린 삼촌이 자주 동생들을 때리기도 하고 무자비하게 괴롭히곤 했다. 그래서 그는 동생들에게 엄하게 굴므로써 삼촌이 동생들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게 해야 했다. 기창덕 바로 밑의 남동생 기창욱은 그림을 잘 그렸는데, 창덕은 동생이 그림 그리는 것을 봐주며 자신은 책 읽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곤 했다.

해방이 되자 기인식은 재산을 몰수당한 채 해주로 쫓겨났다. 재령에는 최문희와 동생들만 남게 되었는데 6.25때 기창덕이 올라가 어머니와 두 동생만 데리고 남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아버지는 후처와 함께 북에 남았다. 아버지를 찾으려던 기창덕의 발길은 폭격 속에 묶였다.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기인식은 집도 절도 없이 힘들게 살다가 장돌뱅이로 혼자 남았다고 한다. 기창덕

은 1945년 10월 21일 인편을 통해 아버지의 편지 한 장을 전해 받았다. 편지의 마지막 구절에는 '너희들은 지금부터 고향(苦學)이 될것이 아니라인의 생활을 힘모할 것 없이 백반절약하여 학학만에 진력하기를 바란다'고 쓰여 있었다. 기창덕은 이 말씀을 평생동안 먹을 마음의 양식으로 비축해 두었다.

이 편지는 기창덕의 서재 중앙에 붙어 있고, 그는 죽기 전까지 매일매일 그 구절을 영성체송을 외우듯 암송하였다.

2) 유년시절

기창덕은 어릴 때부터 책을 읽을 때면 한없이 즐겁고 행복했다. 책장을 펼치면 멋대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 주인공이 되어 보곤 했다. 초등학교 때 이미 중국대륙을 누비던 '삼국지'를 연상하며 장군이 되어 병정놀이를 했다. 중학교 때에는 일본말로 번역된 세계문학전집을 거의 다 읽었는데 2학년때 읽은 '죄와 벌'만이 유독 머리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초등학교 때 글짓기를 해서 '시조'라는 잡지사에서 나온 책을 상으로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그가 써야 했던 글들은 '총과 효', '소방의 날(불조심의 날)', '청소년들의 임무'와 같이 충성스런 일본인이 되기 위한 글들이었다.

그는 자신이 글짓기 상을 탄 것은 감정표현을 잘했거나 글의 묘미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그저 착실한 자신의 성격에 맞게 이치에 맞도록 구성을 잘해서였던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 때 그려야 했던 그림들도 거의 다 포스터 수준이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가 상을 타게 되면 기분이 좋아서 미술선생님이나 국어선생님에게 술을 사주곤 했다. 하지만 기창덕은 사람들 많은데 나가서 상을 받는다는 것이 고역이었다. 한 번은 도지사가 주는 상을 받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불려도 기창덕이 나타나질 않자 아버지가 대신

해서 상장과 옥편을 들고 오셨다. 기창덕은 그 때 야단치던 아버지의 무서운 눈을 아직도 기억한다. “너 왜 상타러 나오지 않았느냐?”

“챙 피해서요”.

“도대체 뭐가 챙 피하냐?”.

“상 하나 탄다고 나가서 사람들 구경거리가 되는게요.”

그 당시 명신중학교는 사립이어서 그런지 일본 선생님들 중에도 좋은 사람 많았다. 고즈마(小島)라는 동경대학을 졸업한 국어 선생이 있었는데 좀 별난 사람이었다. 도조 히데끼라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육군 대신이 그 선생님의 중학교 동기생이었다.

하지만 고즈마 선생은 좌익이어서 공립학교에 있지 못하고 이리 저리 쫓기고 전전하다가 사립인 재령명신중학교로 오게 되었다. 고즈마는 수업 시간에 일본사람들이 명성황후를 죽인 것 등 조선의 역사를 은밀히 얘기해 주곤 했다. 가끔 경찰에 붙잡혀 가기도 했지만 일본 사람이라서 곧 나오곤 했다. 고즈마는 글쓰기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말했다. “글이란 너희 집 식모가 읽고도 감동할 만큼 쉽게 써야 한다”. 고즈마의 이 말은 그의 가슴 속 깊이 간직되어, 어떤 글과 말에서도 선블리 문자를 쓰지 않고 쉽게 전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제하의 가난한 한국인 중학생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대개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일들이 계속되었다. 손기정이 올림픽에 나가 메달을 따 왔을 때 태극기를 그리다가 붙들려간 친구도 있고, 졸업 앨범에다가 아주 조그맣게 무궁화꽃을 그렸다가 발각되어 지워야 하기도 했다. 그 때 친구들은 일본인에게 대든 별로 형무소에 끌려가 며칠 갇혀 있다가 반성문을 쓰고 나오곤 했다.

한 번은 시험거부를 한 적이 있었다. 물리선생 때문이었다. 가르치는 것도 시원치 않은데다가 동경에서 공부했다고 한국인임에도 너무 일본사람 티를 내서 모두들 싫어했다. 학급회의에서 백

지를 내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 “그러면 누가 먼저 내느냐.” 그러니까 다들 ‘반장이 먼저 내야지’ 했다. 기창덕은 한참 망설이다가 ‘그럼 내가 내마’ 라고 말했다.

그 때 시험감독으로 일본인 교련 선생이 들어왔다. 기창덕은 손을 번쩍 들고 이거 암만해도 모르겠는데 그냥 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교련 선생은 ‘그럼 내라’고 했다. 일본인 선생들도 물리선생을 미워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자 ‘야 쓰다’ 라고 창씨 개명을 한 물리선생이 화가 나서 기창덕을 부르더니 조그만 방으로 데려가 막 때리기 시작했다. 회초리 몇 개가 부러지도록 기창덕이 아무 소리없이 얻어 맞고 있으니 나중엔 일어나라고 하더니 뺨을 때려 안경이 날아갔다. 물리선생은 그제서야 ‘안경은 깨지지 않았으니 어서 나가라’고 소리 질렀다. 기창덕은 걸을 수가 없었다. 벌벌 기어서 나오니 반친구들이 어깨동무를 해서 집에 데려다 주었다. 허벅지에 피멍이 들어 열흘 정도 걷지 못하고 삼일은 집에 누워 있어야 했다. 하지만 물리선생이 밭기보다는 반친구들이 결의한 내용을 책임질 수 있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후련하기도 했다.

3) 시험

기창덕이 일제하에서 받아야 했던 교육은 사람으로서의 기본교육이라기 보다는 군국주의에 봉사하는 인력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 대학교 입시 공부는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일 경우 대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했다. 창덕도 3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참고서를 사서 공부를 했는데 수학, 물리, 화학 등의 과목에 흥미를 느꼈다. 그래서 4학년 때 만주에 있는 봉천의과대학에 입학시험을 치러 갔다. 문제가 쉬워 내심 붙을 수 있을 거라고 자만하던 그는 보기 좋게 떨어졌다.

봉천의과대학 도서관 직원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그 해 조선인은 두 명을 뽑았는데 기창덕의 성적은 좋기는 하지만 그 안에 못들어갔다는 것

이다.

당시 봉천의과대학에서 일이등은 다 한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입학 때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 그는 다시 명신중학교 5학년 과정을 마친 후 대학입학시험을 치렀다. 그가 대학입시를 치르던 1944년은 일본의 국운이 기울어져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로 끌려가던 시기였다. 따라서 어느 곳이건 대학입학시험에 합격되어야만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명분이라도 얻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적성이나 개성과는 관계없이, 살기 위해 여기저기에 입학원서를 냈다. 그 중 처음 시험을 치른 곳이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경치전)였다. 그 다음에 친곳이 수원고등농림학교, 광산학교와 경성의학전문학교에도 원서를 냈다.

1944년 2월 기창덕은 경치전 시험을 치르기 위해 서울 하숙방에 거거하고 있었다. 시험은 2월 달에 있었다. 120명 뽑는데 천여명의 수험생들이 새까맣게 몰려서 경치전, 남대문 국민학교, 용산중학교 세군데서 시험을 치렀다.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기 때문에 경험삼아 본다고 생각했다. 시험문제로는 실기 시험으로 자기 손을 그리는 것이 나왔다.

기창덕은 동생 창욱과 함께 손과 발 얼굴을 즐겨 그렸었기에 빠른 시간에 옆에서 본 손그림을 완성했다. 국어문제는 '청소년에게 주어진 임무'에 관한 논술시험이었다. 그거야 말로 기창덕이 글짓기 대회에서 일등으로 상을 탔던 주제였기에 즐줄 의위 썼다. 정답은 장한 일본사람이 되는 것이었는데,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었다. 그 밖에 일본국사, 물리, 화학 등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시험 전날 하숙집에 누워서 문제집에서 체크하면서 본 것들이었다.

1차 시험을 치른 며칠 후 구두시험을 보러 가게 되었다. 시험장에 아무 것도 안가지고 가려니 허전했던 창덕은 경치전 앞에 있는 유리가게에 들어 갔다. 가게 주인에게 '오늘 시험치르러 가는 학생인데 신문 하나만 빌려 달라'고 부탁했

다. 가게 주인은 '오늘자 신문이니까 보고 나서 꼭 돌려달라'고 했다.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시험장에 들어 갔는데 오전 내내 차례가 되질 않아, 점심을 먹고서야 구두시험을 보게 됐다.

시험관은 오늘 신문을 봤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하니까 오늘 신문 제 일면에 뭐가 났느냐고 물었다. 일본군이 옥쇄한 기사가 났다고 대답했다. 한 섬에서 일본군이 다 몰살당했던 것이다. 기창덕은 자랑스러운 일본군이 몇 명 전사하고, 몇 명 다쳤다고 덧붙였다. 시험관은 과학면은 보았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하자 과학기사에 나오는 통계치를 말해 보라고 했다. 기창덕은 막힘 없이 물어보는 숫자를 다 대답했다. 시험관이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며 감탄했다. "오늘 아침밥 먹을 때 하숙집 거 얻어 봤어요". 기창덕은 재빠르게 거짓말을 했다. 아라카라는 교련선생이 싱긋 웃으며 '너 머리 참 좋구나' 덧붙였다. 그렇게 구두시험을 마쳤는데도 붙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었다. 사실 기창덕이 더 가고 싶었던 곳은 수원농림학교 농예화학과였다. 수원농림학교 2차 구두시험을 보러 갈 준비를 하고 나서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재령에서 올라오셨다. 그리고는 기창덕을 막았다. 만약에 가서 붙으면 한국 사람 한 사람만 애매하게 못들어가게 될 터이니 그만두라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어디 창경원 구경이나 가자'고 했다. 창경원에 갔다가 이발소가서 머리 깎고 돌아와 보니 이부자리며 책은 이미 다 재령으로 옮겨진 상태였다.

1944년 3월 기창덕이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합격 통지를 받고 보니 입학생은 174명이었다. 그 중 일본인이 120명, 조선인이 54명이었다. 조선인 학생 중에는 50만원인가 돈을 내고 들어 온 학생도 있었다.

군대에 안 가기 위해 논수십마지기에 해당하는 돈을 낸 것이다. 1학년의 수업은 오전 8시에 시작해서 오후 7시까지 점심시간을 빼고 매일 10시간 진행됐는데 오전에 한 번, 오후에 두 번 쉬는 시간이 있었다. 쉬는 시간에는 예의없이 열전

과 쪽발이로 나누어져 한담을 했다. 군사훈련으로 한강뜨에서 총검술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 중에는 마치 한인 대 일인의 시합과 같은 광경도 자주 일어났고 고의적으로 일인을 몰아치고 속 시원히 생각하는 한인학생도 있었다. 2학년이 되어서는 한인학생은 물론 일인학생 중에도 무단 결석자가 늘고 있었다.

일본은 전세가 심각해지자 1945년도 군입영 연기 대상학교에서 경치전을 제외시켰다. 기창덕의 동기생들 중에는 군대가야 할 나이의 사람들이 많았다. 학도병이 아니라 징병으로 소집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하숙집에 있는 옷가지나 이불을 전부 다 고향에 보내 놓고 간단히 있다가 소집장이 나오면 군대에 들어가야 했다. 자연히 면학분위기는 흐트러지고 학생도 줄고 교수도 줄어 노인 교수들만 남아 허세를 부리기 시작하였다. 기창덕은 특수 감중후보생을 모집하는 시험에 합격해 석달간 군대에 들어가 교육을 받는 중에 해방을 맞았다.

4) 경성치과대학생활

1945년 해방이 되어 서울로 돌아온 기창덕에게는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았다. 동기생 중 이북 출신들은 몇 명 볼 수가 없었고 수업도 중단된 상태였다. 그는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공사장에 가서 노역도 하고, 옷감 장사, 쌀장사 등 닥치는대로 일을 했다. 주로 쌀장사를 했는데, 가장 적은 밑천과 노임으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쌀 한가마니 값을 모아 피난민 틈에 섞여 공짜로 기차를 얻어타고 일산 부근에 가서 쌀한가마니를 배낭에 싣고 서울역으로 돌아왔다. 서울역 부근 후암동이 쌀이 가장 잘 팔리는 곳이었다.

후암동은 예전에 일본인 여관이 많았던 곳으로 일본 사람들이 가고 나서 이북사람들이 그곳 여관에서 생활했기 때문이었다. 여관에 가서 쌀을 팔 때면, 기창덕이 슬슬 고봉으로 담은 쌀되

박을 여관주인들이 툭툭 쳐서 쌀을 쑥 들어가게 만들곤 했다. 그러면 기창덕은 슬그머니 눈물이 나서, 여관에서 밥 한그릇을 얻어 먹고 나오곤 했다.

고학생할 중에 기창덕과 이북출신 학생들이 자주 가던 곳은 바로 구세군에 있던 고아원이었다. 고아원 아이들의 이를 뽑아주고 구강검진을 해주면서 구세군 간부들과 알게 되었다. 그 중 구세군 사령관의 부인이 그와 동기들의 활동을 좋게 보아 구호물자 중 양복이나 쌀 같은 것을 얻어다 주곤 했다.

그 해 10월 경성치과대학이라는 명칭으로 학교가 시작되고 한 학년에 20-30명 가량의 학생들이 모였다. 11월부터 2학년 2학기 과정이 시작되어 병리, 약리, 세포, 내과, 외과 등의 의학과목과 치과병리, 치과임상을 위한 보존 및 보철학, 치아형태실습과 치과재료학, 치과약물학등의 강의시간표에 영어가 새로이 들어왔다. 1946년 8월 경성치과대학교는 국립 서울대학교로 편입되면서 학칙이 재편되어 9월에 학년이 시작됐다. 2학년 과정이 1년 반만에 끝나고, 1946년 9월에 3학년으로 진급한 것이다.

이 때부터 치과전공 임상과목이 시작되었는데 임상교수는 급히 지명된 개업의사들로 교수 몇 명을 제외하고는 준비가 부족했고, 때로는 실습 지도를 하던 선생이 행방불명되는 수도 있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은 당시 학생이나 교수 모두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가난했기 때문이었다.

학기가 시작되면서 기창덕은 토요일을 이용해 쌀을 사기 위해 기차를 타곤 했다. 하루는 기차간에서 전쟁고아 노춘식을 만났다. 일곱 살쯤 된 아이가 때에 절은 중국옷을 입고 오랫동안 머리도 감지 못해 머리카락이 한데 엉켜 철모를 쓴 것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다가가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 중국의 소주에서 만주, 봉천을 지나다가 부모 형제를 중앙군에게 다 잃고 혼자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했다. 기창덕은 그 애를 그냥

놓고 내릴 수가 없어, 쌀을 팔 동안 서울역에서 기다리게 했다가 삼선교에 있는 하숙집에 데려갔다. 하숙집에서는 거지가 들어온다고 문안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게 야단을 했다. 할 수 없이 대중목욕탕으로 데려갔으나, 거기서도 너무 더럽다고 받아주질 않았다.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 목욕탕 밖에서 기다리다가 문 닫을 무렵 사정사정 해서 들어갔다.

당시 대중목욕탕에는 더운 물도 나왔는데, 열탕에 넣고 머리와 몸을 닦아주고 나니까 춘식도 미끈한 남자가 되었다. 기창덕은 춘식을 데리고 있다가 도저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구세군 사령관 부인에게 상의를 했다. 사령관 부인은 구세군 고아원에 바로 데려 오라고 했다. 춘식은 눈물을 흘리면서, "형님이 일요일마다 구세군 고아원에 가서 구강검사라도 해주려면 조수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조수 노릇도 하고 밥도 하고 심부름도 할 테니 제발 같이 있게 해줘요"라며 빌었다. 기창덕은 춘식을 차마 보내지 못하고 하숙방에서 함께 생활 했다. 밥은 주로 간장종지 하나를 놓거나 간장을 푼 국물을 만들어 놓고 먹는 것이 고작이었다. 가끔 가다 돈 생기면 만두국, 떡국을 만들어 먹곤 했다.

어느날 중 춘식이 없어졌다. 얼핏 그 애가 가는 길은 구세군 고아원 쪽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현동 글레방 다리계에서 춘식을 발견한 그는 앞질러 다리 밑에 몸을 숨겼다가, 춘식 앞에 퍽 나타났다.

춘식은 질겁을 해서 길바닥에 주저 앉았다. 기창덕은 먼저 호주머니 검사를 했다. 돈과 가위, 수건이 차례로 나왔다. 실습용 금과 치과용구들은 다 어떻게 했냐고 하니 금은 금방에 팔고 기구들은 다른 곳에 버렸다고 했다. 금방을 찾아가 금을 찾고, 기구들을 수습한 기창덕은 일단 학교로 춘식을 데리고 갔다.

당시 예방의학을 하는 김문조 선생은, 춘식을 경찰서에 데려가지 왜 끌고 다니냐고 했다. 기창덕은 "애도 인간이고 앞으로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될 지 모르는데 전 그렇게는 못해요"하고 춘식을 토닥거리서 저녁 무렵 하숙방으로 데려갔다. 그제서야 그는 너무 분한 마음에 춘식의 뺨을 한 대 갈겼다. 춘식은 "형님 잘못했어요" 하며 울고 그도 둘 다 고아라는 생각이 들어 서로 꼭 껴안고 한참 울었다. 기창덕과 3년 가량을 같이 지내다가 고아원으로 간 춘식은 6.25가 나면서 정말로 행방불명되고 말았는데 기창덕은 춘식이 인민군을 따라 이북으로 갔을 거라 추측한다. 하지만 기창덕에게 춘식은 이념을 떠나 인간에 대한 원초적인 애정을 나눈 사람이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밑바탕으로 기창덕은 계속해서 남산 밑의 애림원이라는 고아원과, 수유리의 고아원, 재생원의 귀머거리, 눈먹은 사람들을 찾아가 치과치료를 해 주었다. 이 고아원과 재생원에는 주로 기창덕 혼자 다녔는데 가끔 노래를 잘 부르는 김노현이라는 동기가 함께 가주기도 했다.

기창덕이 4학년이 되던 1947년은 신탁통치 찬반운동의 격화와 남조선노동당의 결성 등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다. 기창덕과 가장 가까웠던 친구인 김선기는 좌익운동권 학생이었다. 김선기의 매부는 직업적인 좌익 활동가였는데 어떻게 해서인지 남과 북을 자주 왕래하는 듯 했다. 입학 당시 기창덕은 김선기와 함께 공산주의에 관한 운동회에도 참가해서 사회주의가 의미상 올바른 점이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가족들과 연락이 끊기고 이북에서의 재산이 몰수된 그의 입장에서 생리적으로 공산주의에 동의할 수 없었다. 공산주의와 같은 이상사회를 건설하자면 한국인들에게 실제적인 힘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경제적 여건이나 이견을 좁혀가며 민주적으로 의사를 소통하고 결집해나가는 능력면에서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기창덕은 김선기에게 이념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냥 친구로서 지내자고 했다. 그럼에도 김선기는 찬탁대열에 기창덕은 반탁운동대열에 서게 되었다. 당시 기창덕은 민족의 자주

를 위해 신탁이 옳은지 반탁이 옳은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역사적 안목을 가질 수 없었다. 하지만 이북에서는 소련이 신탁통치를 해야 한다고 하고, 남한의 이승만 정부는 반탁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는 반탁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당시 미소공동위원회 2차회의를 평양에서 하게 되자, 그는 반탁운동을 위해 이북으로 올라가는 청년 그룹에 끼게 되었다. 고향인 재령시 사리원에 가서 사람들을 설득할 임무를 맡은 기창덕은 재령에 도착하기도 전에 소련군에게 붙들려 형무소로 끌려갔다. 형무소에는 이미 평양이나 신의주로 갔던 친구들도 붙들려 와 있었다. 인민재판에서 기창덕은 7년형을 언도 받았다. 하지만 소련군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도망쳐 나왔다. 소련군이 석방자 아무개를 나오라고 할 때,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대신 대답하고 나온 것이었다. 그 때 석방된 사람은 백여명의 사람들 중 28명이었으므로 천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다시 돌아온 학교는 임상실습을 케이스제로 하고 있었으므로 케이스만 채우면 가(假)졸업 형식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도 되고 겸직도 가능하였다. 기창덕은 가졸업을 하고 방역연구소에 취직하였다. 1947년 말부터 학생수는 줄어들어 아예 수업이 종료되고 말았다. 1948년 8월10일 기창덕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전문부 제2회 졸업생으로 졸업장을 받았다. 졸업식에 참석한 인원은 적었거니와 교수들의 얼굴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부모 형제도 없는 기창덕은 하숙방에서 북쪽을 바라보며 혼자서 중얼거렸다. “아버지 어머니 나 졸업했어요. 이것이 졸업장이야요.”

5) 미생물학에의 입문

1946년 기창덕은 본격적으로 학비를 벌 궁리를 하다가 경기도 보건후생국 세균실에 취직을 한 적이 있다. 해방 직후부터 한국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북한에서는 희생자가 더 많았다. 남한도 사람들의 대이동과 무질서 때문에 사망자가 점차 많아져 갔다. 미국은 콜레라 방역 임무를 경성제국대학 의학과 세균학 교실의 기용숙 교수에게 맡겼다. 기창덕은 보건후생국 세균실에서 콜레라 검변관이 됐다. 변검사는 직접 채취법으로 했다. 유리관을 항문 안에 집어넣다 빼서 시약에 넣으면 균이 있는 것은 빨간색으로 변했다. 기창덕은 부지런히 도말표본을 만들고 염색체 검사도 해서 통계를 내 상부에 보고 했다. 콜레라는 광학현미경으로도 균들이 꼬리를 흔들며 때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보균자 판단이 쉬웠다.

기창덕의 주요한 임무는 여행을 원하는 사람들의 콜레라 보균여부를 판별해서 증명서를 떼주는 것이었다. 콜레라 보균자는 서울 밖으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장사를 하기 위해 여행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보균자가 아니라는 증명을 얻고자 했다. 그러나 그는 검변관으로서의 역할을 엄격하게 수행했다. 당시 보건후생국의 과장이었던 스미스 소령은 이러한 기창덕을 신임하여 그의 싸인이 들어있는 증명서가 아니면 무효로 만들곤 했다. 그러자 여행중에 기창덕의 싸인을 모조한 모조품들이 고가에 돌기도 하였다.

1946년 콜레라는 9월말에 끝나게 되었지만 검변관 생활을 통해 미생물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47년 11월에 가졸업을 한 그는 미생물 공부를 하고 싶어서 동향의 아저씨인 기용숙 선생을 찾아갔다. 기용숙 선생은 그의 검변관 활동경험을 존중해 방역연구소 장내세균실에 취직을 시켜주었다. 기용숙 선생은 연구소에 오면 뭐든지 철저히 가르쳤다. 그에게 떨어진 첫 번째 임무는 쥐를 산채로 잡는 것이었다. 당

시 페스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산 쥐를 연구할 필요가 있었다. 쥐를 산 채로 잡기 위해서는 집게나 쥐덫 등 쥐잡는 재래식 방법이 총동원되어

대한치과의사협회지

야 했다. 이렇게 잡힌 쥐들은 시멘트로 사방을 막아놓은 방에 가두어 두었다. 쥐들이 자기들끼리 잡아먹고 죽으면 그것을 치우는 것도 그의 임무였다. 그 밖에 염색액이나 아가(agar) 배지를 만드는 임무를 받았다.

당시에는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알콜램프로 아가 죽을 썰야 했다. 죽을 썰다가 한쪽으로 열을 많이 받으면 타 버릴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타면 기용숙 선생은 당장 갖다 버리게 했다.

한 번은 방역연구소에서 기술자 한 명이 콜레라에 감염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연구원 중 누군가가 세균을 만진 탁자 위에 놓고 전화를 받으러 갔다. 이를 알지 못한 기술자들이 탁자 위에서 도시락을 먹었다가 그런 봉변을 당하게 된 것이다. 기용숙 선생은 '세균이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언제 어떻게 너희들 안에 들어가 목숨을 위태롭게 할 지 모른다'고 몇번이나 대청소와 소독을 반복하도록 했다.

자기가 쓴 기구, 물건은 반드시 소독기에 집어 넣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가 먹은 그릇도 깨끗이 씻어 놓아야 했다. 기용숙 선생 밑에서는 무엇이든 철저히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기용숙 선생은 자립정신이 강한 사람이었다. 한국사람도 선진국과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우선 힘을 길러야 하며 훌륭한 과학인들을 양성해야 한다며 평생 의학연구소 설립을 주장하였다. 기용숙 선생은 학문적 고집이 세고 업무처리 때 카리스마도 대단해서, 기창덕은 때때로 선생의 철학을 다 이해하지 못해 마음고생을 하였다.

기창덕은 이 시기에 박승함(보사부차관역임)을 만나 평생 우정을 나누게 된다. 기용숙 선생 밑에서 같이 고생하면서 그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고 서로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던 것이다. 기창덕의 서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가끔 기용숙 선생 사진 밑에 걸려 있는 박승함의 사진을 기창덕과 혼동하곤 한다.

두 사람은 그 때부터 시간만 있으면 같이 행동

하였다. 미생물학회 일과 서로의 일과 가정사를 의논하고 심지어는 같은 색상의 모자와 스포티한 양복을 맞춰 입고 여행과 운동도 같이 다녔다. 이들의 우정은 10분의 코리아 타임도 용납하지 않는 시간엄수에 있어서나 연구비의 자비출연과 미생물학 교재편찬 건에 있어서도 절도가 있었다.

기용숙 선생과 기창덕과 박승함은 같이 냉면을 먹으러 다니며 실험동물사육실 마련이나, 생물의학연구회 발족, 대한미생물학회(대한면역학회전신) 기금조성 때에도 뜻을 같이했다.

6) 진로모색

1948년 기창덕은 기용숙 선생의 소개로 경성여자의과대학(고려대의대 전신)의 세균학 교실로 가게 되었다. 그곳도 권숙희라는 전임강사가 임신 중이어서 쉬고 있고 박진용선생이 혼자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할 일이 많았다.

그러나 그 해 8월 치과대학을 졸업하면서 기창덕은 아르바이트 학생이 아닌 생활인으로서의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결국 기창덕은 무급에 가까운 미생물학 교실 조수직에서 여자의과대학 치과의 유급조수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한국에는 치과의사가 모자라 여기저기 부르는 곳이 많았다. 하지만 그는 가능한 학구적인 환경 속에서 치의학 연구와 임상치료를 하고 싶었다. 한국소아의 영구치 맹출과 지치에 농양이 생겨 눈까지 퍼지는 아쿠토미텀 코오즈에 관한 논문을 썼다. 구강외과의 이형주 선생과 한 거지의 시체를 해부한 적이 있는데 발치 후 상악동 천공이 일어나서 병세가 전두동까지 퍼져 머릿속에서 구더기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시체 밖으로 꾸물거리며 나오는 구더기를 보며 기창덕은 다시 고아원과 깔멜수녀원에 봉사활동을 나가기 시작했다.

깔멜 수녀원, 한번 들어가면 평생 나오지 못해

일명 봉쇄 수녀원이라 부르는 그곳은 혜화동 신학교 옆에 있었다. 수녀원 문턱의 종을 울리면 담당수녀가 직접 나와 문을 열어주는 동안 채소를 재배하거나 가축을 돌보던 수녀들은 모두 숨었다. 그 곳은 가족들조차도 창살 뒤에 커튼을 두 겹 치고야 잠시 면회를 할 수 있는 폐쇄된 수녀원이었다.

기창덕은 1946년 성탄절에 영세를 받고 요한 보스코라는 본명을 얻었다. 당시 명동성당의 윤희중 신부에게 교리를 배웠고, 신앙토론도 많이 벌였으나 신앙이 깊어지기 보다는 교리가 전하는 삶의 자세를 일부 받아들였을 뿐이었다. 따라서 창덕이 깔멜 수녀원을 찾아간 것은 신앙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들이 폐쇄된 생활속에서 기초적인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기창덕은 원장수녀를 설득해 족담엔진을 들러 메고 가서 발로 눌러 가면서 1차 진료를 해주었다. 내과와 외과 진료는 차후 성모병원 원장을 맡은 박병례 선생이 해주었다. 깔멜 수녀원은 불란서에서 온 명신부와 수녀 네명이 운명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기창덕에게 수사가 될 것을 권유하였다. 기창덕은 빠리에 있는 돈보스코 학원에서 의학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면 생각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돈보스코 학원은 보스코 신부가 고아들을 데려다가 기술학교를 만들어서 점차 유치원부터 대학원과정까지 발전시킨 곳이었다.

기창덕은 한국에도 이러한 모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을 바라볼 때 개원을 해서 돈버는 것은 잘 할 수 없을 것 같고 차라리 밥만 먹여준다면 의업에 종사하는 수사가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잠시 명신부에게 불어를 배우다가 6.25를 겪으면서 좌절되지만, 이후 서울카톨릭 의사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고, 나자로마을이나 성가병원의 자선병동, 교포사목후원회, 맹인 협회 및 장애인치과진료에 직간접으로 관계하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된다.

7) 전쟁

6.25 동란이 일어나자 대학 동기 28명 중 김선기를 비롯한 7~8명은 자진해서 인민군에 들어가서 이북에 갔고, 기창덕은 서울에 남아 있다가 38육군 인민병원에 강제로 복무하게 되었다. 기창덕은 거기서 요주의 인물이었다. 이유인 즉 카톨릭 신자이고 반탁운동에 가담한 적이 있으며 방역연구소와 같은 공공기관에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동료의사들은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 둘 자리를 뜨는 것이었다. 기창덕과 한마디라도 말을 나누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그날 밤 보안사령부에 불려가 그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왜 아직도 가까이 지내는지 조사받게 되어 있었다. 다행히도 기용숙 선생 밑에서 교육 받은 현선생이라는 여자 의사가 인민군 육군총령으로 별 넷을 달고 있었는데 기용숙 선생을 생각해서 기창덕을 보위해주었다.

인민군 병원에 있는 동안 기창덕은 부상당한 인민군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 낙동강 주변에서 인민군들이 몰살을 당했으며, 시체 위에 시체가 쌓여있고, 심하게 다친 사람들은 후송해주지 않았다는 등의 이야기였다.

그런 소식을 듣고 기창덕은 인민군 병원을 탈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밤에 인민군 병원벽을 뛰어 넘어 처마 밑으로 숨던 날, 하늘에서는 조명탄이 쏟아져 마침 그가 가려던 마포지구에 떨어졌다. 마포에는 부역나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갈 곳을 바꿔야 했다. 그럴 때 생각난 두 사람 중 하나는 기창덕이 여자의과대학에 딸을 편입시켜 주었던 집이었으나 막상 가보니 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새벽이 가까워오자 기창덕은 인민군 병원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나온 적

십자 완장을 차고, 대로를 활보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는 골목길로 숨어들면 죽는다. 대로로만 걷는다'는 원칙이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세브란스 흉부외과 담당 선생의 집이었는데 다행히도 기창덕을 반겨주었다. 그 집 다락방에서 삼개월 가량 숨어지냈는데, 거기서 주요섭 선생을 만나게 되었다. 주요섭 선생은 미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비서를 맡고 있었는데, 이승만의 이모저모를 알려주었다.

국군이 서울을 탈환하여 삼선교 외곽지역까지 온 날이었다. 인민군들은 그날 밤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죽였다고 했다. 다음날 아침 국군이 들어오자 기창덕과 주요섭은 대문 밖으로 뛰어나와 만세를 불렀다. 새하얗게 야윈 얼굴에 수염이 덩수룩한 한국인들이 만세를 부르자 미군들은 초콜렛이나 담배를 던져주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기창덕은 대한민국 공군 의무관으로 군대에 남았다. 전시 중에 미군에게서 구강외과를 배운 그는 군대에서 꼬박꼬박 주는 월급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했다. 젊은 기창덕은 한 때 미생물학에 입문했다가 치과로 옮겨가고, 수사가 되려했다가 군대에 남게 된 자신의 삶이 너무나 마음먹은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8) 의대부속병원에서 개원의로

1960년 카톨릭의과대학 치과학 교수로 재직하게 되면서 기창덕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카톨릭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강질환 역학조사였다.

한국인들의 치아우식증(충치)이환율은 해방전 60%가량이었다. 해방이 되자 80%로 올라갔다가, 6.25동란을 거치면서 90%를 넘게 되었다. 기창덕은 자신이 몸담아 온 치과계를 되돌아보았다. 희미하게 기억되는 종로거리의 '이해박는 집'이라는 간판, 원색으로 그려진 충의치의 그림

이 붙은 간판이나 치과의원 출입구 앞에 마련된 진열장에 진열된 갖가지 보철물의 견본들이 일제 시대에 가끔 눈에 띄던 광경이었다. 1940년대 중반 조국을 되찾은 기쁨과 건설의 희망으로 민간층에서는 치과의사회와 치과기재상공회 등이 발족하였고 행정부에는 치무국으로 치과업무를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목표는 국민구강보건의 향상에 있기보다는 치과의료인의 권익옹호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발전에 있었다. 1950년 6.25동란으로 기창덕 역시 구미 선진국의 치과의술을 전쟁터에서 혹은 기지병원에서 배웠고 특히 구강외과분야의 발전은 현격했다.

그러나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어서 시대적 유행과 한국인들의 경제적 궁핍간의 괴리는 여전히 있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임상 및 기초분야에서의 분과학회가 창립되고 학회지가 선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술적인 성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보다는 연구하는 분위기와 방법을 터득하는 과정이었다. 기창덕 역시 1966년 11월 동경에 있는 실험동물중앙연구소에 가서 1년간 실험동물학을 공부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병원측에서는 치과학 과장이 임상수업에는 관심이 없고, 실험동물학등에 힘을 쏟는 것에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기창덕은 고민 끝에 43세의 나이로 개원을 했다.

서울 중구 서린동에 처음 자리잡은 기창덕치과 의원에 들어가면 의원 한쪽으로 토기와 쥐들이 사육되고 있는 기광경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기용숙선생의 주장에 따라 미생물연구회 회원을 중심으로 실험동물연구회(1968년)를 발족하면서 자신의 의원에도 사육실을 두었기 때문이었다. 연구심이 강했던 그의 임상기술은 곧 환자들의 신임을 얻기에 이르렀다.

가능한 환자를 주의깊게 관찰하여 병을 치료함에 있어 병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치료 방법에 대해 상의하였다. 기창덕은 항상 환자에

게 지시할 것이 아니라 환자와 상의해서 결정할 것을 강조했는데 이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는 자세가 전문적 견해보다 앞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의원운영은 약속제로 진행했는데 환자가 10분이라도 늦으면 돌려보냈다.

환자들 중에는 당시 사회의 고위층 인사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이 약속제 운영방식과 마찰이 있어 관계가 틀어진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방자 여사와는 자질한 문제를 상의하고 문화제 탐방을 중심으로 함께 여행을 다닐 정도로 개인적 친분이 두터워졌다.

기창덕은 치의학 전공분야에서의 자기발전율도모하기 위해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대한구강보건학회, 대한치과임플란트학회, 대한면역학회, 대한실험동물협회 등의 학회활동을 지속하였다.

1979년부터는 피에르포샤르(Pierre Fauchard) 아카데미 한국회 발족에 참여하여 국제학술교류 및 봉사활동을 함께하였다. 피에르포샤르는 19세기 프랑스의 현대치 의학을 체계화하고 빈민구제 등의 사회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의과 및 치과의사로 그 지부에서는 학술연구 및 교류와 의료윤리확립과 직업봉사활동을 강조하고 있었다.

재법 수업이 괜찮고 시간적 여유를 얻을 수 있어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개원의 생활을 하는 동안 기창덕은 서울 근교에 땅을 사서 배밭과 과수원을 운영하였다. 하지만 재산운영에 있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었다.

동료의사들이 은행에 돈을 예탁하고 서울 근교의 땅을 사고, 빌딩을 짓고 세입자를 들이는 동안 손수 디자인하고 옷감을 선택해서 옷을 해입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고, 책을 사들이고, 봉사활동을 한다고 그때 그때 돈을 썼던 것이다.

그러나 가족들에게 인색해서 부인에게만 기초생활비와 취미활동비를 급여하고, 자식들에게만 참고

서 영수증을 받아오게 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돈이 독이 될 수도 있으며, 행복할 때에는 돈이 적고 많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철학에 근거한 것이다.

부인은 일찍이 정신적인 독립을 선언했다. 그것은 신혼여행 때부터의 일이다. 신혼여행을 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를 하고 깰 때, 밤새 안녕히 주무셨나요, 하고 인사를 하라는 남편의 지적이 못마땅했던 것이다.

기창덕은 그 후 가정생활에서 자신이 아침에 출근할 때, 부인이 나와서 '다녀오세요' 하면, 아이들도 따라하고, 자신도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하고 싶었지만, 부인과 아이들은 그냥 쳐다볼 뿐이었다. 기창덕이 생각할 때 부인은 애교를 부릴 줄도 모르고, 엉뚱한 고집을 부리고서도 사과하지 않으며, 혼자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학생 때 빨갱이질을 해서 감옥에 가서 혼란 적도 있고 글쓰는 것을 좋아했다는 여자가 서예도 짚끔 재봉도 짚끔 뭐 하나를 끝까지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환갑 때에는 어쩌나 자기홍을 보는지 사람들을 다 웃기고 말았다.

이러한 기창덕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꾸어나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타인의 삶을 흠모하지 않기 위해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며 보낸 시간들이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원하는 삶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방식을 찾아내기 마련이다.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그 자신의 법칙을 통하여 일상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그는 자신만의 삶의 담과 노력이 배어있지 않은 여설폰 흉내나 처신을 혐오했다.

타인의 삶을 흠모하지 않기 위하여 타임 스케줄을 짜고, 연구계획을 세우고, 무료 봉사활동을 나갔다. 그가 열망하는 것은 개원의로서의 성공이 아니라 자신을 지탱해 온 의학문의 뿌리를 캐고 전체성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그의 학문에 대한 집념은 쓸모없고 피상적인 모든 것을 떨쳐내 버렸다. 사람을 만나 술을 마

시는 일만큼 소비적인 일은 없다며 컴퓨터를 켜거나 돋보기를 들고 고문서(古文書)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시간을 빼앗는 사람은 돈을 뺏는 사람보다 더 염치없는 사람이다.'

이제 자신은 과거의 의학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학문의 이미지를 창조해야 한다. 의학은 어떻게 발전해왔고, 어디로 나가야 하는가. 의사는 어떠해야 하며,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는 이제 쌀장사를 하며 고학하는 학생도, 시대의 조류나 부조리한 삶에 휩쓸려 극과 극을 왔다갔다하는 젊은이도 아니었다. 담배를 끊어 고학생 한 명을 4년제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원하는 책은 아낌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재산도 축적한 성숙한 인간이 되어 있었다.

9) 의학사 연구

1978년 경 기창덕은 종로구 필운동 사직공원 부근으로 치과의원을 옮겼다. 오래된 아파트 일반주택의 거실에 치과장비와 기구를 들여놓고, 화장실을 제외한 모든 방들을 서재로 개편했다. 병원 간판은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일부러 아주 작게 만들어 한쪽 귀퉁이에 달아 놓았다. 그것은 그토록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에 몰두하기 위해서였다.

인간은 누구나 어떤 목표에 집중하면서 흐트러짐 없이 개개의 욕구에 온 힘을 쏟을 때에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한국의학사에 대한 정리, 이것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책과 더불어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행복했다. 그러나 나이 선이 넘고 부터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

그렇수록 그는 매일 아침 일곱시면 서재에 도착해 저녁 아홉시가 돼야 집으로 돌아가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의학사 자료를 구하기 위해 일본으로 장기 출장을 떠나기도 하고 집필에 몰두할 때에는 일주일이나 열흘 간 자신의 서재에

서 먹고 자며 생활했다. 그렇게 20여년간, 한국의 의학사, 그 가운데서도 개화기 의료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역사를 새로 집필하고 의학계와 후진들을 위한 전문서적을 내는 것이 그의 주요한 일과였다.

1987년 6월 기창덕은 '조선의보' 영인본을 펴냈다. 그가 남달리 책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고서들을 수집하게 된 데에는 우리 선인들의 지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조금도 뒤지지 않고 오히려 높은 수준이었다는 자부심 때문이었다. 학창시절부터 고학으로 모은 돈으로 인사동 고서점을 돌아다니며 고전을 수집하는 것이 낙이었고, 그것이 그의 장년의 생활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됐다.

해방 전 조선인 의사들과 치과의사들만으로 구성된 조선의사협회 학술기관지인 '조선의보'를 입수하게 된 것 역시 인사동 고서점가에서였다. 합본으로 된 조선의보는 결본이 많았고 구입 이후 별다른 관심없이 서가에 묵혀 있었으나, 80년 이후 국내 각의과대학에서 나름대로 학교사 및 교실사를 발간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의보에 실려있는 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결본을 채우려고 국내에서 찾아보니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어 85년부터 일본을 드나들면서 동경대학의학부 동경치과대학 및 일본대학 치학부, 慶應대학치학부, 長崎의과대학 등의 도서관 서고를 뒤져 결국 결본을 다 찾아냈다. 영인본을 꾸미게 된 것은 인제의대 전종회교수의 재촉에서 비롯되었다. 기창덕은 사재를 들여 2백권을 출간하게 되었는데 모두 비매품으로 하여 각대학의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유관단체, 언론계에 배포했다.

조선의보는 1930년 2월 21일 조선인 의사와 치과의사의 자원집결체인 조선의사협회가 창립되면서 본협회 사업의 하나로 학술지를 간행하기로 결정. 그 해 11월에 창간호를 내고 8년간에

걸쳐 꾸준히 간행(제1권1호-제7권4호:총 24호) 되었다.

당시 조선의보는 1930년대 조선인들의 연구업적은 물론 회원들이 형제같은 우의를 다질 수 있도록 사소한 일까지 연락해주면서 회원들을 이어주는 강력한 힘이 되었던 것이다. 조선의학계의 사정, 의료인들의 동정과 의료시설의 발전, 당시 조선인 의사들의 활동범위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한국의학사의 단편이었다.

그 지면 속에는 어렵던 시대에 몇몇하게 활약하며 학문적으로도 민족자결의 몸부림치는 양상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뚜렷이 지면에 나타나게 되다보니 1937년에는 일제로부터 발간중지를 증용받았고, 1939년 9월에는 협회마저 강제로 해체당하는 비운을 맞게 되었다. 결국 일인들이 만든 기존 조선의학회나 잡지에 통합하게 한 것이다.

조선의보 관계자료를 수집하면서 기창덕은 그 간의 한국의학사들이 상당수 일본 사람이 쓴 조선의학사를 기준으로 하여 서술해 놓은 것을 발견했다.

일본인의 눈으로 한국의료사를 본 것이지 한국 사람의 눈으로 본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한 두군데가 아니었다.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1987년 7월, 한국치과의학사 상권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책은 기창덕 자신이 보기에 부끄러운 시작일 뿐이었다.

그가 일본에서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다니다 보니 체면은 차려야 하겠고 시간은 없고 물가는 비싸고 부자유스럽고 안타까울 지경이다. 참말로 우리말이 하고 싶다.'고 쓰여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지배를 위해 형식적이고 상업적인 의료체계를 도입시켰을 뿐입니다' 하며 일본치과의사 학술대회장에서 발표하는 그의 등줄기에 땀이 배었다.

국가의 절대적인 힘속에서 조선사람들이 힘 없는 나라, 나라없는 사람들로 얼마나 무시당했던가 기창덕은 자신의 성장기를 되돌아보았다. 교

육은 가르치는 사람 즉 사회, 부모, 교사가 받을 사람 즉 학생에게 그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과 지식을 분명히 이해시키고 몸에 익혀 사회도덕을 지키고 정당한 판단으로 국가 사회를 위하여 이익이 되게 일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사람의 교육은 한국사람이 해야 한다. 그 래야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사람의 관심에 맞게 동서의학을 절충하여 겨레와 인류에 봉사할 수 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기창덕은 한국 치과의학사 증보판과 함께 한국근대의학교육사를 발간했다. 일제 이전의 조선조 개화기의 의료를 집필하기 위해서 그는 발로 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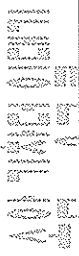
당시의 자료를 구하고 그것을 분석, 재조명하기 위해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을 샅샅이 뒤져 의료사에 관계되는 부분은 모조리 뽑았다. 고전문학 속에 나타난 민간요법을 탐색하고, 전통의료기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람들을 찾아가 진위를 확인했다.

한 번은 개화기전에 한국인이 만들었다는 '틀니'를 보기 위해 밤기차로 떠났다가 일제 시대의 의치업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임을 확인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멈추지 않고 한국인의 생태변천을 연구하기 위해 국사학회나 고고학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그쪽 방면의 학자들과 유대를 가지면서 한반도 인골의 변천을 연구해 발표한 것이 '한국인의 구강 상태와 구강 의학', '고대 한국 치과의학' 등의 논문이다.

무식은 고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법, 개명의 물결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자본의 유입속에 유행이 업고 왔지만, 한국의 외래의학의 유입과 발전은 동서의학을 막론하고 기원전부터 한국사람의 생태와 관심에 맞게 수용되었다. 그러나 기창덕은 한국 고유의 전통의학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다.

이질적인 문화간의 충돌과 교류 속에 인류의 의학사는 계승, 발전해왔고 세계 의학사가 그러 하듯이 한국의학도 미신적인 의료행위로부터 경



협의료행위를 거쳐 계통적인 의료행위로 진보한 것은 한가지였다. 그러나 한국의 의학은 해부학적 근거를 둔 병태 생리학이나, 뚜렷한 외과술식의 개발, 임상 및 기초의학 실험과 역학의 통계치 활용 등의 면에서 현대 서양의학에 빚진 바 있다.

1999년 기창덕이 미국과 일본에서 강의하고자 했던 '한국의학사' 초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중원 사진과 6.25구호물자와 페니실린 제제, 전쟁 당시의 의학연구실, 70년대 사용되었던 기자제와 현재 한국의 의료진이 개발해 낸 세계 최고의 의료장비와 연구성과를 담은 슬라이드 사진들이 순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한국이 서양 의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던 첫 반세기 동안 아주 서서히 그것은 도입하는데 몰두하고 있었다면, 후반세기 동안에는 급격하게 발전해서 현재 어느 곳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의술을 간직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서양 의학이 지니고 있는 현재의 한계, 암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의 무용함, 난치병에 대한 실험적이고 반복적인 투약등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동양 의학에서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기암환자에게 케모세라피가 근본적인 암세포 제거나 증세의 호전을 가져다주지 못할 때 죽음과 삶의 세포들이 함께 공존하는 상태를 그의 몸이 어떻게든 적응할 수 있게 체질을 복돋아 주는 것, 이게 앞으로 남은 과제라는 것이다. 병의 치료에는 특정부위의 병태생리학적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인간 전체, 병자의 체질과 인간성이 이해되어야 더 이상의 파괴를 막을 수 있다.

특히 동서 의학의 접목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하고 근사한 것을 내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를 해도 정확하고 깊이있게 실증해보이는 것이다.

특히 남북한 의료의 통일문제에 대해 기창덕은 이렇게 얘기했다. 남북한 의료의 통일의 힘은 우

리 내부에서 나와야 한다. 자고로 의학과 치의학 기술과 장비는 경제수준과 궤를 같이하며 발전해왔다.

유럽의 의학발달이 1,2차 세계대전 후 미국에게 실권을 빼앗기게 된 것도 그러하다. 사회복지나 의료보장의 측면에서는 사회주의 의료가 분배면에서 올바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이상적인 의료체계의 실현은 실제적인 힘, 국가 경제력과 우수하고도 도덕적인 전문가 양성, 국민들의 의료에 대한 이해와 민주적인 훈련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제 그는 아버지를 찾으러 폭탄 속으로 뛰어들만큼 성급한 젊은이가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천을 모색할만큼 현명해져 있었다. 20여년의 세월을 학문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으나 그가 외래교수나 강사로 활동한 것은 불과 몇 년되지 않고, 연구비는 물론 책 출판비도 모두 자비 출연한 것이었다.

차츰 그는 몇권의 책을 낸 노학자로서의 학문적 업적만이 아니라, 성격의 고결함으로 존경받고 있었고, 정치적으로 야심찬 투쟁에 뛰어들지 않았으나 진보적인 후학들을 지지할 만큼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다.

또 하나의 미덕은 자력으로 발굴한 의학사 관련자료와 주장들이 논파 불가능하도록 완벽히 증명이 될 때까지 출판을 연장할 줄도 알게 되었다. 자력으로 향학에 매진하여 차츰 의학사 연구자들과 연계하였고, 의학문의 영역을 확대하려 했다.

의학을 자연과학적 방법만이 아니라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여 인간의 과학으로, 의학자를 단순히 의학의 발달을 촉진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인간정신을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철학자로 자리매김하였다.

결국 의학은 인간의 과학이며, 의학사 연구자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몫은 의료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지에 대해 올바른 역사적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10) 논문과 노익장

필자는 1998년 여름 치의학석사논문 지도를 받기 위해 서울 필운동 서재(蘇岩醫文化史研究所)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새벽 여섯시 반, 사방이 책장으로 둘러싸인 기다란 탁자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어슴푸레 밝아오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컴퓨터 화면 속 푸른 소나무 절벽에 새 몇 마리가 파도 위를 떠돌고 있었다. 그는 단아한 몸매에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짧은 스포츠형으로 머리를 깎아 흰머리가 밤송이처럼 치솟아 단정하면서도 정력적으로 보였다. ‘논문은 유서와 같은 것이다. 학문에 대한 통과 의례지, 그 통과 의례는 누구나 거치는 거지만, 그렇다고 자신만의 학문적 독창성이나 세밀함 없이 범상한 일상의 반복으로 담보되어서는 안된다. 이제까지 알려져 있지 않고 밝혀져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묻지 않는 논문은 부도덕한 것이다. 이미 쓰여진 것에 대한 첨가가 아니라 새로이 실험적으로 입증해내고 논리적으로 구성해내야 도덕적인 것이다.’

그는 자신이 1965년 가톨릭 의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내가 박사논문을 쓰려고 미생물학 교실에 가 있을 때 말이지. 난 스트렙토코코스 락토바실리우스(*Streptococcus lactobacillus*)를 이년 넘게 배양해왔는데, 기용숙 선생께서는 끝끝내 그것이 락토바실리우스가 아니라고 하셨어.

그래서 새로 발치현상에 대해 논문을 준비했지.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 내가 박사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한 치과대학에 나의 연구계획을 알리고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거든, 그 때 참고자료를 보내준 일본교수가 나의 연구계획대로 발치현상을 연구해 먼저 논문을 발표해버린 거야. 그래서 발치현상에 대해 보다 심화된 내용의 논문을 쓰기 위해 삼년간의 시간이 더 필요했어. 내가 직접 현미경소견과 임상소

견, 병리소견들을 종합하는 자료들을 모아서 슬라이드를 만들고, 일본교수의 논문까지 참고자료로 써야했지. 그런데도 기선생님은 그 논문이 헛점투성이라는 거야. 그래서 혈액응고에 대한 전문가를 밤늦게 데리고 와서 그의 승인이 있고서야 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지.

그리고 한 십년 후엔가 일본인 교수가 사망하고 그의 부인이 일부러 한국에 와서 자신의 남편이 나의 논문을 가로챈 것에 대해 죽을 때까지 미안해하더라고 전하더군요. 그 후부터 나는 다른 사람들의 논문들을 엇비슷하게 바꾸거나, 받침하나 더 세우고서 학위취득하려는 사람들, 그들을 역사적으로 폭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나온 모든 의학논문선집을 만들고 있지. 학문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독창성과 치열한 일관성이 있어야 해. 나도 이전에 몇 번 자네학교 선배들의 논문을 지도한 적이 있었지. 그런데 학생들이 논문을 어떻게든 통과하려고 독창성없이 다른 사람의 연구성과에 토를 다는 정도로 끝내려는 것도 문제지만, 소위 논문을 지도한다고 하는 교수들 중에 논문을 반도 읽지도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몇번 무효를 선언한 적이 있었지. 그 후론 자네학교에서 내게 논문지도를 요청해온 적이 없어.”

그 날 그는 자신이 40여년이란 긴 세월을 두고 편저한 ‘한국치과 의사논문총취’ 제 1,2집(1991,1994)을 선물로 주었다. 그는 자신이 4천편에 가까운 치과의학논문들을 일일이 정독해서 제목과 목차, 초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이 책이 치의학 연구의 안내역할과 더불어 우리나라 학계의 업적과 외국의 것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그 후 예상대로 그가 필자의 논문계획자체를 부정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니, 남이 이십여년간 뛰어다니며 쓴 논문을 인용자 표시도 없이 마구 틀리게 요약해놓고서, 이제와서 논지도 없는 논문을 통과시켜 달라니”. 그의 요지는 첫째, 직접 보지 못한 원자료의 경우 그가 최초의 문헌발굴

대한치과
사학회지

자이며 인용자였음을 정확히 밝히려는 것과 둘째, 선행연구물들의 전면적 재구성이 아니라 철저 독창적인 논리를 전개하라는 것이었다. 필자가 심혈을 기울여 작성해간 원고마다 그에 준하는 반론이 빨간펜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는 한없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일곱 차례에 걸쳐 논문을 다시 써오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한 발자국 성큼 뛰어오르면 그에 준해서 흐름을 잡아주는 일도 해 주었다. 그것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사람을 훈육할 줄 아는 분별력과 정열을 가진 스승에게서나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원자료의 발굴자까지를 밝혀야 한다는 그의 주장 속에는 자신의 학문적 편력을 과시하고 유일성을 확보하려는 무리한 욕망이 도사리고 있었다. 일흔이 넘으면서 그의 노익장 과시는 노망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주위의 우려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한치도 어김없이 수행해왔던 사람의 다소 배타적이고 결연한 모습 속에 파고드는 자아도취, 자기흡모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유일성에 대해 이 세상에서 치과 의사이면서 의사학회 회장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 뿐이고, 발치현상에 대한 역작의 논문을 처음 기획한 사람도 자신 뿐이며, 나병환자들의 입안에 맨손으로 발치점자를 들고 이를 뽑다가 그 피를 빨아마신 사람도 자신 뿐이었다고 이야기했다. 그에게 당신의 연구물도 선행연구자들의 노력에 힘입은 것이며 자신의 이름을 건 학문적 독창성에 대한 착각은 무욕의 면류관을 쓰려는 권력욕과 배타적 엘리트주의일 뿐이라고 반론을 제기하면 그는 잠시 마음상하는 듯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 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나. 많은 동료들이 나에게 미쳤다고 했지. 이상하게 놀더니 아예 미쳐버린 거라고. 미칠 것 같은 고통과 답답함속에서도 내가 외롭지 않았던 것은 그래도 늘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있었고, 나라도 하지 않으면 늦어지고 말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야.”

11) 세 가지 물음

1998년 가을, 그가 담석이 생겼는데 느낌이 이상하다며 검사를 받기 위해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했을 때, 논문지도를 받기 위해 찾아갔었다. 그는 일인용 병실에서 침대의 등받이를 최대한 올리고 등판으로 베개를 두서너개 포개 놓은 채로 노트북에 작업을 하고 있었다. 환자용 간이 전등은 컴퓨터 자판을 밝혀주는 스탠드로 변신해 있었다. 음료수를 넣으려 냉장고를 열어보았더니 생수는 커녕 주위에는 오프너나 과도, 물컵 하나도 없었다. 그는 피를 뽑으러 온 간호사에게 “내, 제자야” 하고 필자를 소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먼저 논문 사이사이에 간지를 붙이고 형광펜으로 줄쳐놓은 것을 차례차례 넘겨가면서 고쳐나갔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다.

선생님은 치과 의사협회 문화대상,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상, 피에르포샤르 아카데미 공로상, 특별봉사상, 학술상,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상등상을 많이 타셨는데요. 상타는 것이 좋으셨나요?

상과 벌은 한 인간을 그 소속 집단의 목적에 맞게 장려하거나 터부시 하기 위해 만든 제도적 장치이다. 사실 나는 여러번 상을 받아왔지만 내가 받고 싶었던 상은 단 한 가지 뿐이었다. 피에르 포샤르 상 말이지. 피에르 포샤르는 내가 직접 흉상을 만들어 몇백개 복사해 동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정도로 존경하는 인물이거든.

선생님은 서재에 아버지와 기용숙선생의 사진을 항상 붙여 놓고 사시잖아요. 혹시 그 분들의 삶을 모방하고 그를 뛰어넘고 싶었던 건 아니었나요?

나의 아버지는 교사이자 장사꾼이었어. 집에서는 엄격한 가장이면서 세컨드를 맞아들이자 아버지에게 대한 혐오감때문에 내가 금욕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려 했던 것은 아니야. 사실 나는 순간적인 매혹에 빠지는 기분파이고 매우 아기자

기한 사람이야. 하지만 고학 당시 아버지가 보낸 편지는 말씀 그대로 나에겐 바이블이 되었지. 또 내가 기용숙 선생님을 모시는 건, 그가 지녔던 많은 인간적 시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의 올바른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지. 사실 그 분도 말년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찰이 많았어. 이승만 정권 때 기용숙 선생님은 한국의 전염병 방역을 맡으셨지.

한국에는 자주 콜레라가 돌았는데 그러면 외국 바이어들이 끊긴다고 해서, 그 사실을 공표하지 않으신 적이 있었어. 난 그래도 양심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는데, 그는 아니라고 하셨지. 난 아직 어려서 모른다고. 난 그 분들의 삶을 뛰어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을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것 같아.

선생님은 의사나 치과의사들이 의술로서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나 현대의 술의 발달이 국민건강권을 확대시킨 것도 아니고, 의권은 집단엘리트주의나 상업주의라는 의심을 받기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상업화는 현대사회 전체의 문제지. 경제적 수입에 따라 국가 및 개인의 삶의 서열이 정해진다. 사고방식은 끝없는 물질적 욕망속에 맹목적인 경쟁을 부추겨 사회전반이 도덕적 위기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어.

히포크라테스의 의학사상은 미신이나 주술같은 술법과는 손을 끊고 체계적 관찰에 의해 생명구조에 조화되지 않는 원인을 파악하고, 우선적으로 환자를 책임지겠다는 윤리적 원칙을 근본이념으로 성립하였어. 의학사에 있어서 진정한 개혁은 자연과학부문에서의 획기적인 발견을 자기이익의 추구에서 공익을 위해 이타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어. 그러나 의술의 발달에 비해 의료의 공익성을 확대할 국가, 의료인, 국민간의 의사조정능력이나 의료윤리는 퇴보하고 있어.

그 결과 의술은 상업화되고, 환자는 자기 병을

진단 받는 과정에서부터 개인적으로 큰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거야. 의학의 자연과학이면서 동시에 사회과학이며 인간의 과학이므로 국가, 의료인, 국민 모두 의료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제공할 의무가 있지.

특히 의료인들은 자신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학문적인 면에서 우수할 뿐 아니라 의료윤리에 투철해야해. 의사들이 병에 대한 최고의 지식과 권위를 가지고 자기 업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집단적인 엘리트의식에서 벗어나 자기희생적인 봉사정신으로 스스로 보다 가난하게 살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는 진보성이 필요한 것이지.

12) 납 골

기창덕은 암선고를 받기 얼마 전 자신의 어머니와 기용숙 선생의 유골을 이장해 가족묘를 새로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설계한 가족묘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가로10미터, 세로 7미터의 공간에 24대에 걸친 족보가 돌에 새겨져 있고, 화장한 뼈들이 보도블럭처럼 나란히 묻혀지는 납골당이였다.

인구는 많고 땅은 비좁은데 묘소가 자리만 차지할 것이 아니라 한가족의 유골이 모로라도 함께 누으면 이보다 더 좋은 묘소가 어디 있겠는가, 장차 한국의 장례문화는 납골당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파괴침은 북쪽 황해도 기씨가문의 본적을 향해 세우고 무덤 앞마당에는 잔디가 깔린다.

기씨 가문의 사람들은 일년에 한 두 번씩 그곳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소풍놀이를 한다. 계집애들은 흙으로 소꿉장난을 할 것이고, 사내애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칼싸움을 할 것이다. 애들이 뿌린 꽃씨로 조그만 꽃밭도 만들어 놓으면, 가족화원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했다.

'이렇게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물

있더니, '아니 다섯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땅에 칠십여명이 묻힐 수 있는 경제성이 있지' 하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논문 최종심사가 있을 즈음 기창덕은 서재에서 다섯시에 퇴근해서 즐곳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는 눈치였다. 심사위원 직인을 받으러 가 있는데 전화가 왔다.

기창덕은 "그래, 책장암이라더군. 만나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과 의사에게 모든 걸 맡겼으니까 괜찮아." 하며 전화를 끊었다. "힘드시겠어요" 했더니, "박승함이 82년에 암선고를 받았을 때 난 너무 눈물이 나와서 운전도 할 수 없고 병원에 오는 환자도 모조리 돌려보냈어."

그런데 어제 마누라가 처제한데 이런 말을 했다더군, '그 양반이 암이라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니 이젠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라고 말이지" 하고 대답했다.

그는 책장암 선고를 받은 후에도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구실에 나와 곧 책으로 출간될 한국개화기의문화연표(1864-1910)를 교정하고, 치의학용어사전을 검토하는 중간 중간에 사람들을 불러들여 서울대에 기증할 책과 자료들을 정리했다. 또 치료비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에게 스케일링까지 손수 해주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의사에게 맡긴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는 자신의 증세를 보다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약을 구하기 위해 열흘간 미국으로 떠났다.

그는 그 열흘 동안의 비행시간과 담석제거수술, 씨티와 엠알아이, 세포점사시간까지 치밀하게 타임 스케줄을 짜가지고 떠났다. 미국에서 돌아온지 얼마 되지 않아 의사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으로 떠났다.

그의 병세는 푸얼리 디퍼렌시에이트 되어 있었다. '희망이 있군요', 했더니 그는 그제서야 '그래서 한 번 싸워보기로 했다'며 미소를 지었다.

"지금은 기운도 없고 정신도 없지만, 몇 달 후면 모든게 나아질 거야"라고. 케모세라피가 말기의 암환자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 주는지 그도 알고 있었다.

그러한 그가 한사코 자신 내부에 기하급수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암세포들과 싸우기로 했다니, 그는 아직도 자신의 정열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열에 대한 아쉬움' 그 때문에 그는 처음으로 인생에 대해 허무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죽음에 대한 예감만을 간직한 채 하루하루의 일상을 계획한대로 빼곡히 살고 있었다.

그러다 점차 죽음 앞에 위축된 자신을 감추지 않게 되었다. 휴식시간을 늘린 것이다. 그는 점심을 먹고 난 뒤 한 시간 가량 낮잠을 잔다. 그것도 계획해 놓을 것이다. 케모세라피를 앞두고 일주일간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

그것도 계획해 놓은 것이다. 죽음이 자신을 삼키기 전까지 힘을 조금씩 비축해 두자. 몸 어디 한 군데라도 먼저 무너지지 않게 할 것, 비축한 힘을 가장 중요한 일에 쏟아부을 것. 주도면밀하게 의연하게 죽음을 준비할 것.

그는 케모세라피를 받기 전 사직공원을 산책하고,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고, 수채화용구를 챙겼다.

그것은 수성펜으로 밑그림을 그린 뒤에 붓에 물을 묻혀서 번지게 하는 것이다. "너무 아프면 주위를 다른데로 돌리기 위해 그림이나 그려볼까 생각하고 있어. 사물의 특징을 스케치하고, 마음대로 물로 흐리게 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말이지. 난 투명하게 좋아."라고 말했다.

일차 케모세라피를 받은 이후에 3인용 쇼파에 누워있는 그는 야위어 있었다.

"오래간만이야. 좀 누워있어도 되겠지?"

"고생 많으셨지요. 좀 어떠세요"

"내 몸하나 가누지 못해서 부끄럽군"

"케모세라피는 잘 되셨나요?"

"이제 1차 치료가 끝난거지. 그 이전에 했던

것들은 다 무효구”

“항암치료과정 속에서는 몸이 허공에 붕 뜬 것 같기도 하고, 하나의 사물이 둘이나 그 이상으로 겹쳐보이기도 한다면서요”

“마치 별세계에 다녀온 것 같더군. 나도 내가 어떻게 된 건지도 잘 모르겠어”

“아뵤든 다시 선생님 연구실로 돌아오실 수 있어서 좋으시겠습니다.”

“물론이지, 병원은 그 공기만으로도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환자들만 가득하고, 하지만, 좀 전에 사람이 하나 다녀갔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면서 이야길 했어. 아무것도 기억이나질 않아”

“선생님 병실에 게실 때 한번 찾아갈까 싶으면서도 선생님께서 싫어하실까봐 못 갔어요.”

“오지 않길 잘했지, 오는 사람한테 사실 욕하고 싶었어, 남은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걸 보겠다고 오나해서 말이지, 하지만 온 사람들은 다 모 대학병원장처럼 병원의 규제를 뛰어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

“그럼 병실에는 주로 사모님께서 같이 있으셨나요?”

“마누라가 꼬박 나하고 같이 갇혀 있었지”

“선생님, 사모님께 잘하셔야 합니다. 사모님은 아마도 평생동안 선생님의 사랑이 성에 안차셨던 것 같아요”

“뭘, 나야 늘 마누라만 마음 속으로 사랑해왔지”.

그의 눈속에 깊은 애정과 감미로운 미소가 감돌았다. 그러나 그의 뒷모습은 변해 있었다. 역사 각형의 뒤통수에서 목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큰 주름이 두 서너개 잡혔다. 성성했던 백발이 개털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몇마디 말하는 중에도, 눈짓이나 사소한 움직임에도 비듬처럼 머리 카락들이 빠져나와 그가 입은 녹색 가디건에 달라붙었다.

그는 자신의 몸무게의 변화를 민감하게 추적했으나 별 변화가 없다는 것에 어느 정도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살아있는데 무엇하나도 자신의 뜻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에 서서히 절망하기 시작했다. 말을 하는 중간에도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회미해졌고, 무엇보다 그가 소중히 생각하는 타임테이블에 따라 자신을 방문할 사람들의 시간을 조율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실이 그를 무척이나 난감하게 만들었다.

그는 누워서도 새로이 발간할 치의학용어사전 3차 교정을 보고 있었다. 그 작업은 어렵지는 않지만 더디고, 조금도 방심할 수 없는 일이었다. 교정쇄를 넘기면서 얇아져가는 책장들만큼 자신의 삶이 얇아져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날 수록 그가 암으로 죽을 것이라는 소문이 멀리 퍼져갔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 조금 쑥스러웠고 자존심이 상했다. 그는 현재 치료비가 떨어졌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자식들과 처제나 친척들에게 치료비를 신세지는 죄를 짓고 있다고 괴로워했다.

아무리 돈을 무시하고 살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인생을 종말까지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돈은 가지고 있었어야 했다며 후회하는 심경을 내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신이 맑아질 때마나 그는 연구실로 향했다. 서재에 누워서 누구에겐가 온 안부전화에 대해 “지금 아주 좋아, 모처럼 정신이 맑다구, 너도 잘 지내고, 뭘 하든지 열심히 해라”하고 답하고 싶은 것이다. ‘자, 이제 일을 시작해야지’ 하며 책상에 앉았다가 졸듯이 업드렸다가, 쇼파에 누워 ‘잠시 정신을 가다듬어야지’, 하면서 책들이 다 빠져나가 텅 빈 서재에서 흡족한 잠에 빠져들어가고 싶은 것이다. 그는 그렇게 연구실 쇼파에 누워있다가 병원으로 옮겨진 지 이틀 후 2000년 3월 20일 향년 7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본 내용은 대한의사학회지 제9권 제1호 통권 제16호 (2000년 6월)에 게재됐던 글입니다.